



중국 도시화 수준 50% 상회로 경제발전 자극 전망

왕양비 연구원

■ 12월 19일 중국 사회과학원의 「2012년 중국사회 추세분석 및 예측 보고서(2012年中国社会形势分析与预测)」에 따르면 2011년 중국의 도시화 수준이 50%(도시/농촌 인구 기준)를 넘어섬에 따라 중국의 도시화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했다고 지적함.

- 사회과학원은 2011년 중국 도시 인구가 최초로 총 인구의 50%를 차지하였을 뿐 아니라 농업호적 인구의 약 30%가 도시 및 도시 주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농촌인구의 비농업 취업이 이미 보편화되었다고 밝힘.
- 최근 중국의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중국인의 생활방식, 생산방식, 산업구조, 소비경향, 가치관 등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, 공업화 및 시장경제화 이후 도시화가 중국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됨.
 - 1949년 중국이 사회주의국가로 건국될 당시 132개 도시로 도시화 수준이 5.1%였으며, 건국 30년 후인 1979년에도 도시 수가 216개, 도시화 수준이 8.5%에 불과했음.
 - 1979년 개혁·개방 이후 중국의 공업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도시화 속도가 빨라졌으며, 1997년 도시 수가 668개, 도시화 수준이 18%에 달함.
 - 최근 10년간(2001년 WTO가입 후) 중국의 도시화 수준이 연평균 3.0%p 이상씩 높아진 가운데, 도시화가 중국경제의 시장경제화와 함께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.
 - 경험적 패턴에 따르면 도시화 수준이 50% 임계점을 통과한 나라의 도시화 진척도는 더 빨라지는데, 이에 중국 내수시장 확대, 산업구조 변화 등이 진일보할 것으로 판단됨.

■ 그러나 도시에서 생활하는 농촌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및 고속 발전에 따른 도시의 환경오염 문제 등이 존재함에 따라 각 지방정부의 경우 단순한 도시화 촉진보다 주민 생활개선과 환경보호 등을 지속적 발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됨.

(봉황재경, 매일경제신문,12/20 등)